

불자 세상보기



박호석 법사
육군 제8350부대
인국사 지도

최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일어난 총기사고로 관심병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병영생활 중에 충동적인 성격으로 가혹행위나 규정위반, 사고유발, 또는 자살 등이 염려되는 병사를 심리검사를 통해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관심병사를 구분하는데,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병사의 20%가 관심병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관심병사의 4분의 1은 고위험 군에 속한다고 하니 너무도 충격적이고 놀라울 뿐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계급조직의 특성상 각종 스트레스가 일어나기 쉽고, 병영이라는 공동생활에서 동료 사이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 등으로 우울증, 대인 기피증, 충동장애 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들이 급기야는 자살이나 사고로 발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의 총기사고도 그동안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군 관련 사고

들이 대부분 이에 기인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게다가 경쟁위주의 학교, 한자녀 중심의 가정환경, 외톨이 놀이문화의 영향으로 남을 배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성장배경이 이런 군대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가방위이므로 군인은 언제나 임전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강한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전사로 만드는 일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장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여전히 나라의 동량이 되도록 훈육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자녀를 나라에 맡긴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사 개개인의 고민과 불만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하는 심리상담이 관심병사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라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이 병사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불상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요. 갈수록 커져가는 전쟁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군내부의 문제들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최근에는 군에서도 전문상담제도를 도입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관심병사들 모두를 보살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중분야에서도 상담에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일부 종교에서는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크게 눈에 띄는 실적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아마도 인류역사상 심리상담을 처음으로, 또 가장 잘하신 분이 부처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때로는 직접 찾아 고통받는 중생들을 상담을 통해 제도하셨음을 많은 경전을 통해 알 수 있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여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고, 묻는 사람의 심리를 헤아려 근거에 따라 치료하시는 부처님의 대기살법이 바로 상담의 극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화활동은 현대 심리상담과 전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불교는 마음공부이니 바로 심리(心理)와 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과 오늘날 상담심리학과와의 장단을 파악하여 이를 장병상담에 응용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종단, 군종교구, 일선 군승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동안 조계종 상담개발원이 육군 제1보병사단의 관심병사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사단 군승이 전역하고 나니 사업이 흐지부지된 것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를 위해 일을 담당했다는 자부심과 군대에서나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 자신의 삶에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수긍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흔히 “군대를 다녀오더니 사람 됐다.”는 말이 정말이어야 합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의 생각처럼 군입대가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싶은 일이라고 한다면 관심병사는 더욱 더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른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조계종 新법인법 통과, 실효성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인법이 ‘법인 권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으로 대체입법됐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6월 25일 열린 제198차 임시회에서 법인관리법을 장시간 논의 끝에 수정 가결했다.

법 통과에 따라 경과조치를 마련해 선학원과 대각회 등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에 대해서는 9월30일까지 종단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여타 법인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종단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새 법인법도 여전히 규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아예 사찰 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조항까지 신설했다.

법인 등록을 놓고 갈등 중인 선학원과 관계를 새로운 법인관리법이 풀어낼 수 있지도 의문이다. 신임 총무부장 정만 스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한 번 통화한 것이 전부인 상황에서 소통없이 만든 완화 조항을 선학원이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이 같이 논란 요소가 여전한 상황에서 법인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은 일선 법인들에게 상당한 무리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 종회 논의 과정에서 한 중앙총회의 원 스님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법인법 대체입법이 솔직히 불만이다. 확신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법안 발의자 스님은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쉬운 법 개정을 말하며 통과에 열을 올리는 논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안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총무원이 우려하는 대로 법인의 난립은 문제가 있다.

특히 사찰 재산으로 출연해 만드는 법인의 관리가 필요하다. 조계종이 만들어야 할 법인법은 종교 행위를 하는 법인을 관리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어디까지나 ‘관리’ 여야지 ‘규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

남한산성을 호국불교 성지로 가꾸자

호국불교 성지인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건이 한꺼번에 등재된 이래 창덕궁과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애에 이번엔 등재된 남한산성까지 모두 10건의 세계문화유산 보유국이 됐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삼전도 굴욕의 장소다. 왕궁과는 별개 산성이면서도 국가 유사시에 왕이 일상적으로 거주한 ‘비상 왕궁’이다. 세계적으로 남한산성밖에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는 남한산성이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시대별 성곽 축성술과 다양한 무기체제의 방어 기술 변화상을 잘 나타낸 데 높은 점수를 줬다.

게다가 지금까지 주민들이 거주해 살아있

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다만 단조조항이 달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남한산성 인접 지역의 개발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고, 주민들이 유산 관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사실 최근까지 남한산성이 유원지 이미지가 강한 것 때문인 것 같다. 문화재청도 경기도와 함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이라고 한다.

남한산성에는 망월사지, 개원사지 등 다수의 불교문화유적이 남아있다. 우리 불교계도 앞으로 복원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장경사가 한발 앞서 꾸준히 하고 있다. 의승군이 머물렀던 남한산성 불교 문화 복원을 위해 의승군 수록무차대법회 등을 병행한다. 이에 발맞춰 불교계가 합심해 남한산성내 불교문화재 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

발언대

“예측도 준비해야 나온다. 준비하는 자의 남다른 자격”

이영표의 족집게 해설 화제… ‘비밀노트’ 100권의 독서도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 이영표 KBS해설위원(37)이 다시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인간문어’ ‘문어 영표’, ‘프스트라다무스’로 불리며 월드컵 경기 결과를 정확히 짚어내는 이영표 해설위원의 예측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문어는 남아공 월드컵 당시 7경기 결과를 정확히 맞춘 ‘폴’이란 점쟁이 문어에서 따온 별명이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6월 20일 열린 일본과 그리스의 C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양 팀이 무승부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상은 들어맞았다.

이영표 해설위원의 예측이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영표 위원은 브라질 월드컵 개막 전 방송된 월드컵 특집프로그램에서 “칠레가 스페인을 6대4 정도의 확률로 이길 것”이라며 “스페인에 몰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표 위원의 말대로 스페인은 네덜란드와 칠레에 1-5, 0-2로 잇따라 패하며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이영표 위원의 족집게 같은 예측에 의

신도 주목했다. 웰스트리트저널(WSJ) 한국판 블로그는 19일 이 위원의 활약상을 언급했다.

WSJ는 “월드컵 개막 이후 이영표 해설위원은 정확한 경기 결과 적중률로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점수까지 정확하게 맞히는 ‘신통력’을 발휘했다. 그는 이미 ‘문어 이영표’라는 애칭까지 얻었다”고 전했다.

족집게 예언과 시청률 수직 상승의 비결은 ‘남다른 노력’에 있었다. 이 위원은 방송가에서 악바리로 정평이 났다. 방송 시간 외에는 운동 분석에 매달린다. 자투리 시간까지도 꼼꼼히 활용한다. 그간 읽은 책도 100권이 넘는다. 이 위원은 “경기 분석에 주어진 시간이 이틀이든 혹은 반나절이든 상관없다. 해당 시간 모두를 공부에 쏟아붓는다”며 “경기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데서 그쳐선 안 된다. 머리에 완전히 입력해야 생중계 도중에 순발력 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나름의 노하우를 전했다.

이영표 위원은 중계 노트를 빼곡히 채



우며 공부했고, 노트가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보고 또 보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른바 이영표의 비밀노트다.

이 위원의 비밀노트 안에는 선수들의 정보와 경기를 분석한 통계가 빼곡히 적혀있어 그가 중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놓치지 않은 이영표의 꼼꼼함과 치밀함이 엿보였다.

이영표 위원의 노력으로 KBS는 시청률 1위에 올랐다. ‘인간 문어’가 월드컵 TV중계의 이슈 메이커로 떠올랐지만 KBS는 대회 개막 직전까지 시청률 꼴찌를 면치 못했지만 이후 약진을 거듭해 1위로 치고 올라갔다.

네티즌들 호평 이어가

이렇듯 깊은 분석과 철저한 노력에 대해 시청자들은 호평을 이어갔다. “역시 노력하는 자를 따라잡을 수 없구나”, “이영표 예측 뒤에 이렇게 많은 노력의 산물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

SNS에서 james00은 “하나부터 열까지 놓치지 않은 이영표의 꼼꼼함과 치밀함을 보면서 정말 쉬운게 없다는 걸 느꼈다.”, qwer100은 “노트가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보고 또 보는 이영표의 노력...저도 본받고 싶네요.”, sibal00은 “역시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저런 노력이 있으니 그런 분석과 예측이 가능할 수 밖에 없네요.”, heojeob은 “선수들의 정보와 경기는 누구나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저런 꾸준한 근성으로 하기관 쉽지 않다. 노력하는 자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이영표를 통해 배웠다.” awjh00은 “예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군. 역시나 성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칠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교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약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